

貿易과 産業組織의 連繫性에 관한 考察

劉 承 旻

韓國經濟의 對外依存度, 市場開放의 程度가 높아감에 따라 商品, 資本, 技術의 對外去來와 內需市場의 産業組織이 갖는 連繫性은 韓國의 産業組織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本稿에서는 輸入 등 海外로부터의 流入과 輸出 등 海外로의 流出이 産業組織의 主要變數들과 갖는 因果關係를 經驗的 産業組織論의 體系內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이에 대한 諸假說을 전개 하며 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同時性을 충분히 고려한 聯立方程式體系의 推定結果는 同時性을 무시한 경우보다 諸假說의 주장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實證分析 結果는 假說을 지지하나 輸出의 경우에는 相反된 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本 研究의 分析 結果에 의하면 그 동안 韓國의 輸入政策은 市場成果를 向上시키는 手段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輸出增大를 위한 輸入擴大의 기능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輸入에 대한 市場 開放에 있어서 非關稅障壁의 除減은 市場成果에 대하여, 關稅障壁의 引下는 輸入의 內需占有 率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正의 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政策目標에 따른 政策手段의 選擇에 대하여 중요한 示唆點을 갖는다.

I. 序

産業組織論에 관한 國內外的 諸般研究들은 國際貿易, 海外直接投資, 國家間 技術移轉 등과 같은 國家間 連繫(international linkages)

를 무시해 온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國家間 連繫性이 클수록 內需市場에 있어서 企業들의 競爭的 行爲나 內需市場의 成果에 대하여 競爭促進的 效果를 증가시킬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國家間 連繫性 자체가 有效競爭을 보장해 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영향력 또한 市場構造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商品, 資本의 對外去來가 늘어날수록 國家間

筆者: 本院 研究委員

* 著者は 本 研究의 草稿에 대하여 귀중한 論評을 해 준 本院의 李奎德, 左承喜 博士께 깊이 감사드린다.

統計의 整理에 도움을 준 韓光錫 研究員, 원고정리에 수고한 金銀淑 研究助員에게도 감사드린다. 本 研究의 見解나 어떠한 誤謬도 著者 個人의 것임을 밝혀둔다.

連繫性은 높아지며, 이는 자연히 內需市場의 產業組織을 분석함에 있어서 對外去來와 產業組織의 連繫가 갖는 중요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특히 70년대말부터 중요시되어 온 市場開放의 문제는 80년대에 들어서 그 논의가 본격화되고 政府의 開放政策이 실행되어 오면서 內需市場競爭에 대한 海外的 要素의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市場開放에 대한 논의는 주로 巨視的인 觀點에서, 혹은 상당히 總體的인 次元에서 輸入自由化 및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어 왔는데, 부분적인 언급을 제외하고는 市場開放이 特定 內需市場의 構造, 企業行態 및 市場成果와 갖는 연관성을 產業組織論的인 次元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¹⁾. 한편, 韓國의 產業組織에 대한 연구는 짧은 역사와 자료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척이 있었으나 美國의 경우와는 달리 對外依存도가 높은 小規模經濟인 韓國의 실정에 알맞은 變形, 改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²⁾.

對外去來를 고려한 產業組織의 연구는 韓國의 產業組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뿐

아니라 市場開放에 대한 政府의 政策이 급변하는 過渡期的 시점에서 政府의 輸入自由化政策, 資本自由化政策이 市場構造, 企業들의 競爭行態, 市場成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微視經濟政策의 次元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對外去來와 產業組織間의 連繫性에 대한 기존의 理論的, 經驗的 研究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規模의 經濟, 商品의 差別化 등에 따른 不完全競爭狀態를 假定하여 完全競爭을 假定하는 종래의 무역이론을 再構成 하려는 新貿易理論인데, 이 범주에 속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產業組織에서 貿易으로" 라는 因果關係의 방향을 미리 상정하고 있다. 둘째, 新貿易理論과는 독립적으로 國內市場을 중심으로 Bain流의 經驗的 產業組織論을 발전시켜 海外部門과의 聯關性까지 고려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온바 여기에서는 新產業組織論이라고 부르기로 한다³⁾. 新產業組織論은 商品 및 資本의 對外去來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에 있어서의 經驗的 產業組織論을 위한 SCP模型(structure, conduct, performance)을 제시함에 그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貿易에서 產業組織으로" 라는 因果關係의 방향을 미리 상정한다⁴⁾. 因果關係의 방향에 대한 이같은 假定은 經驗的 分析을 위해서는 事前的 制約要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對外依存도가 높고 市場開放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韓國經濟의 產業組織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新產業組織論에서와 같이 對外去來와 內需市場의 產業組織이 가질 수 있는 有機的 關係를 明示的으로 고려하는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新產業組

- 1) 楊秀吉(1984), Kim Kwang Suk(1988) 등을 참조할 것.
- 2) 최근 李奎億 博士에 의해 시도된 貿易과 產業組織의 연결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있는 研究로 평가된다. Lee Kyu-Uck(1988) 참조할 것.
- 3) Jacquemin(1987)의 저서인 *The New Industrial Organization* 등에서의 新產業組織論과는 별도로 新貿易理論과의 대칭적 분류로서 新產業組織論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 4) 新貿易理論의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Krugman(1985), Yoo(1987) 등에 인용된 문헌을 참고할 것. 新產業組織論의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Eastman and Stykolt(1967), Caves(1971, 1982), Caves et al.(1980), Caves and Khalilzadeh-Shirazi(1977), Pugel(1978, 1980), Gorecki(1976), Esposito and Esposito(1971), Pagoulatos and Sorensen(1976), White(1974), Yamawaki(1984) 등을 참조할 것.

織論을 韓國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논하고, 新產業組織論에서 제기되어온 諸假說을 韓國의 경우에 대해 검증하되 因果關係에 대한 事前的 制約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II章에서는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對外去來와 內需市場 產業組織의 連繫性에 대한 諸假說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假說을 중심으로 Bain流의 SCP模型이 韓國의 產業組織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변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假說들에 의해 제시되는 因果關係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III章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計量模型을 만들고 변수의 측정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IV章에서는 計量模型을 검증하여 그 결과에 대해 논하며, V章에서는 結論 및 向後 研究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對外去來와 產業組織의 連繫性에 대한 假說의 提起⁵⁾

本 論文을 통한 分析의 單位는 內需市場이다. 이는 國內에서의 기업의 行態는 內需市場

- 5) 產業組織論의 분석에 있어서의 기본단위인 市場은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內需市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美國에서 발전된 Bain流의 產業組織論은 對外依存度가 낮았던 美國經濟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海外的 要素를 무시해 왔다. 여기에서 內需市場의 產業組織이라 함은 이러한 美國式 產業組織論의 韓國의 適用에서 야기되는 市場의 範圍問題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 6) 韓國信用評價(1987)의 報告書에 의하면 製造業의 경우 外國人投資企業은 國內企業에 비하여 總資本經常利益率, 賣出額經常利益率, 賣出額純利益率 등 모든 기준에서 높은 收益性을 나타내고 있다. 非製造業의 경우에는 산업에 따라 相反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附表 2>, <附表 3>을 참고할 것.

이라는 범위를 가장 적절한 限界로 설정하고 전개된다는 假定에서인데, 輸出市場의 경우는 이는 內需市場에서의 企業行態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를 보다 直接的인 競爭의 單位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된 市場의 범위를 輸出市場과 內需市場으로 분류해 볼 때, 內需市場에서의 競爭에 참여하는 既存企業은 그 市場에 輸出·販賣하는 外國企業, 直接·合作投資의 형태로 生産·販賣에 참여하는 外國人投資企業, 그리고 순수한 國內企業으로 나누어진다. 內需市場의 競爭에 참여하는 세가지 形態 중 輸入과 內需市場 產業組織과의 관련성은 충분히 인식되어 왔으나 直接·合作投資의 형태로 內需市場에 진출한 外國人投資企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外國人投資企業의 경우 이들의 市場進入을 결정하는 要因이나 市場進入後의 行態, 이들이 획득하는 利潤 등을 결정하는 要因들의 觀點에서 본다면 國內企業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韓國의 경우 外國人投資企業은 國內企業에 비해 높은 收益性을 기록한다⁶⁾. 이는 外國人投資企業과 순수한 國內企業을 구분해서 그 行態 및 市場成果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內需市場의 競爭狀態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主要要因으로는 潛在的 競爭(potential competition)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潛在的 競爭이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따라 이 또한 國內潛在進入者에 의한 競爭壓力과 海外潛在進入者에 의한 競爭壓力으로 구분해야 한다. 後者の 경우 다시 輸入可能性에 따른 海外潛在 競爭 및 直接·合作投資 可能性에 따른 海外潛在 競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潛在的 競爭 또한 既存企業의 경우와 같이 세가지 유형으

로 분류한다. 既存企業들간의 競爭과 함께 潛在的 競爭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既存企業들로 이루어진 市場構造가 비록 獨寡占的이라 할지라도 市場成果의 側面에서는 完全競爭狀態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可能性은 潛在的 競爭에 일부 기인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潛在的 競爭의 競爭促進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Bain流의 進入障壁을 구성하는 전통적인 市場構造의 變數들 및 競爭的 市場 假說이 유일한 進入障壁이라 주장하는 埋沒費用(sunk cost)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⁷⁾. 潛在的 競爭은 經濟的, 構造的인 變數 이외에도 각종 制度的 裝置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認·許可制度를 통한 政府의 進入規制는 國內의 潛在進入者들에 대한 人爲的 進入障壁을 형성하며, 輸入에 대한 關稅 및 非關稅障壁은 輸入을 통한 潛在的 競爭에 대하여, 外國人投資에 대한 各種 規制는 投資를 통한 潛在的 競爭에 대하여 각각 人爲的 進入障壁을 형성함으로써 潛在的 競爭의 競爭促進效果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 潛在的 競爭에 대한 論議의 중요성은 이것이 市場開放, 政府規制의 緩和 등 최근의 중요한 懸案問題들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認·許可制度에 대한 規制緩和은 國內로부터의 潛在的 競爭을 제고시킬 것이며 市場開放

은 海外로부터의 潛在的 競爭을 제고시킬 것이다. 海外로부터의 潛在的 競爭이 輸入을 통한 潛在的 競爭과 直接·合作投資를 통한 潛在的 競爭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市場開放 또한 關稅·非關稅障壁의 除滅을 통한 輸入競爭에 대한 開放과, 外國人投資에 대한 規制의 緩和을 통한 開放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중요한 政策示唆點을 갖는바, 어느 방향으로의 市場開放이 가장 유익하나 등의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本文에서의 分類과 같이 政府의 競爭促進手段을 國內로부터의 競爭과 관련된 競爭政策, 輸入競爭과 관련된 市場開放政策 및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市場開放政策 등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때 어떠한 政策의 選擇 혹은 配合이 最善이냐는 결국 소위 말하는 政府의 目的函數가 무엇이냐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政府의 目標가 단순히 完全競爭狀態에 가까운 分配의 效率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新規國內企業의 進入, 輸入增加, 新規外國人投資企業의 進入 중 어느 것이 가장 效率的인 경쟁을 초래할 것인가에 따라 政府의 政策手段이 決定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政府目標가 消費者 및 生産者剩餘의 極大化라면 分配의 效率性 못지 않게 獨占利潤의 海外流出이 문제시되므로 競爭政策의 相對的 重要性이 더욱 부각된다. 後者와 관련해서 動態的인 觀點에서 "先國內競爭促進 後開放"이라는 주장이 開陳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內需市場에서의 競爭度의 주요결정요인인 市場開放의 程度는 SCP模型體系內에서 基本條件 혹은 市場構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市場開放의 程度가 海外로부터의 潛在的 競爭의 強度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는 기존의 進

7) 企業行態, 市場成果에 대한 潛在的 競爭의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크게 Bain流의 阻止價格假說(limit pricing hypothesis)과 Baumol 등의 競爭的 市場假說(contestable market hypothesis)로 대별된다. 潛在的 競爭을 國內, 海外的 要素로 구별한 대표적 연구로는 Dixit and Kyle (1985), Eaton and Kierzkowski(1984), Gorecki(1976) 등을 들 수 있다. 潛在的 競爭을 本文에서와 같이 세가지 원천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進入決定要因을 理論的, 經驗的으로 分析한 研究로는 Yoo(1987) 등을 들 수 있다.

入障壁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市場構造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市場開放의 程度가 輸入, 外國人投資 등을 통한 外國企業의 販賣實績에는 영향을 주지만 이와 同一視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輸入 혹은 外國人投資企業의 內需占有率의 경우 분명히 市場의 構造를 결정하는 중요한 要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을 바탕으로 市場開放의 程度를 결정하는 각종 政策手段을 基本條件의 要素로, 內需占有率은 市場構造의 要素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外國技術의 導入은 輸入, 外國人投資企業 등 內需市場에서의 販賣를 통한 市場占有와는 달리 직접적인 競爭의 要素는 아니다. 하지만 外國技術의 導入이 품질이 우수한 商品의 生産 혹은 生産費用의 節減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外國의 우수한 技術을 도입한 企業과 그렇지 못한 企業間의 相對的 市場占有率 分布, 收益性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內需市場의 產業組織에 있어서 市場構造 혹은 行態의 主要變數로 간주된다.

內需市場에의 流入과는 달리 輸出, 海外投資 등 對外進出은 內需市場의 競爭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海外進出의 形態 및 規模가 內需市場의 產業組織과 깊은 관계가 있음은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만약 輸出의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경우 韓國 內需市場의 產業組織이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 구체적인 次元에서 보면 海外進出과 內需市場의 產業組織을 연관시키는 것은

8) 輸入의 경우에 內需市場에서의 競爭에 參與하는 主體를 그 市場에 輸出하는 外國企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輸入商으로 볼 것이냐는 問題가 여전히 남는다. 이 問題에 대한 明確한 解答을 구하기는 어려운데 商品의 特性 혹은 產業의 特性에 따라 相異한 結論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流入의 경우만큼 명확하지 못하다. 현재로서는 輸出이 주종을 이루고 海外投資는 아직도 初期段階에 있으므로 輸出과 產業組織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對外去來의 고려와 함께 SCP模型에서 수정되어야 할 主要變數 중 供給者의 分布를 들 수 있다. 현재의 분석단위가 內需市場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鑛工業統計資料를 기초로 해서 추정된 集中指數는 出荷額을 基準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輸出은 포함된 반면 輸入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內需市場의 集中指數를 이중으로 歪曲시키고 있으며, 輸出入의 增加에 따라 對外依存度가 높아질수록 歪曲度는 심하게 나타난다. 內需市場에서의 精確한 集中指數를 얻기 위해서는 內需市場의 경쟁에 참여하는 각 企業들의 市場占有率을 알아야 하는데, 國內企業의 경우에는 出荷額 중 輸出額을 제외한 內需市場販賣額만을, 外國人投資企業의 경우에도 內需市場販賣額만을, 輸入의 경우에는 內需市場에 輸出이라는 형태로 참여한 外國企業의 國內販賣額을 각각 규명하여, 각 企業들의 販賣額이 總內需市場販賣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精確한 集中指數를 구하는 것은 결국 內需市場에서의 企業別 販賣額에 대한 精確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外國人投資企業의 경우 鑛工業統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輸入의 경우에는 個別 外國輸出企業別로 販賣額을 조사하는 것이 產業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동일한 國內輸入商이 여러 外國企業의 製品을 輸入하게 되는 경우에는 內需市場에 輸出하는 外國企業을 규명하기가 어렵다⁸⁾.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

는 方案은 Ⅲ章에서 檢討하기로 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輸入을 무시하고 國內企業, 外國人投資企業의 內需用 販賣額만을 기준으로 추정된 集中指數는 경우에 따라 더욱 심하게 歪曲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本 論文에서는 抽象的인 分析에 대신하여 海外的 要素를 포함시키는 SCP模型의 改編에 따라 이들 主要變數들간의 相關關係에 대한 기존의 經驗的 新產業組織論의 研究結果와 韓國의 產業組織에 특유한 관찰들을 중심으로 假說을 전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附表 1>에서는 以上の 論議를 바탕으로 開放經濟의 產業組織을 위한 SCP模型에서 새로이 고려되어야 할 變數들을 基本條件-市場構造-企業行態-市場成果로 分類, 紹介했다.

假說 1: "海外로부터의 競爭에 대한 開放의 程度가 높은 產業일수록 다른 조건이 같은 한, 內需市場에 있어서의 潛在的 競爭 및 實際競爭의 程度가 높을 것이므로 市場成果는 향상될 것이다".

內需市場에서의 競爭은 假說에 명시된 바와 같이 潛在的 競爭과 實際競爭으로 나누어지는데 兩者 모두 市場開放의 程度 및 여타의 市場構造의 變數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實際競爭이란 內需市場에 참여하고 있는 既存企業들간의 競爭의 樣相을 일컫는 말로서, 현실적으로 觀측되는 輸入, 外國人投資의 內需占有率이 實際競爭의 尺度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內需占有率은 實際競爭이 있기 위한 필요조건

은 되지만 充分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는 市場占有率, 價格 등에 대하여 政策的인 制限이 있을 수도 있고 外國企業과 國內企業間的 談合可能性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市場開放의 程度가 潛在的, 實際的 競爭을 통해 市場成果를 결정한다는 因果關係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觀측되는 輸入, 外國人投資의 內需占有率의 決定過程에 대해서는 뚜렷한 連繫性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輸入, 外國人投資의 內需占有率 자체는 市場開放의 程度 등에 의해 결정되는 또 다른 從屬變數로 볼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begin{aligned} \text{內需市場의 成果} &= F_1(\text{市場開放의 程度,} \\ &\quad + \\ &\quad \text{輸入(外國人投資企業)의 內需占有率,} \\ &\quad + \\ &\quad \text{獨寡占의 市場構造)} \\ &\quad - \\ \text{輸入(外國人投資企業)의 內需占有率} &= \\ &\quad F_2(\text{輸入(外國人投資)에 대한 市場} \\ &\quad + \\ &\quad \text{開放의 程度, 內需市場의 成果, 獨} \\ &\quad - \\ &\quad \text{寡占의 市場構造)} \\ &\quad + \end{aligned}$$

이와 같은 聯立方程式體系에서 나타난 連繫性과 因果關係는 Ⅲ章의 計量模型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市場開放의 程度는 內需市場의 成果와 輸入(外國人投資企業)의 內需占有率 모두에 대해 正의 效果를 가지지만, 後者は 前者에 대해 正의 效果를, 前者는 後者に 대해 負의 效果를 가진다고 假說化되었다는 점이다. 輸入(外國人投資企業)의 內需占有率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市場開放

9) 假說 1은 既存文獻에서도 많이 발견되며 市場成果와 市場開放의 關係에 대한 通念化된 주장이기도 하다.

의 程度 이외에도 두번째 式에서와 같이 內需 市場의 成果나 市場構造의 特性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市場成果의 指標로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分配의 效率 혹은 靜態的 效率이란 企業의 市場支配力減少를 통한 完全競爭狀態로의 접근에 따라 利潤率이 하락하고 消費者剩餘가 증대함을 말하며, 技術的 效率 혹은 動態的 效率이란 競爭程度의 深化에 따른 技術革新努力, 費用節減 등으로 인하여 生産性이 향상됨을 의미하는데 後者の 경우 흔히 주장되는 國際競爭力強化, 比較優位確立 등과 관계된다. 假說1에서 市場成果의 향상은 市場開放을 통한 海外로부터의 競爭이 반드시 競爭促進의인 방향으로 작용함을 假定하는데, 만약 海外競爭의 導入으로 談合 등 不公正去來行爲가 증가하거나 政府가 고의적으로 國內企業들간의 談合을 助長할 경우 등에는 市場成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假說 2: "最終消費財에 대한 市場開放이 아닌 原資材, 中間財의 輸入이 內需 市場에서 競爭促進의 機能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韓國과 같이 輸出을 위하여 原資材, 中間財를 輸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市場開放에 따른 輸入의 增加가 國內市場에서의 競爭促進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生産財產業에 더욱 현저할 것이다¹⁰⁾."

Lee Kyu-Uck(1988)에 의하면 韓國의 경우 原資材, 中間財 등의 輸入은 國內商品과의 競

爭關係가 거의 없었으며, 政府의 輸出支援에 힘입어 거의 모든 產業에 있어서 輸出이 활발해짐에 따라 輸入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貿易과 產業組織과의 因果關係에 있어서 示唆點이 큰바 貿易이 產業組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產業組織의 特性에 의하여 韓國의 貿易構造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주장도 발견된다.

假說2는 假說1과 상호 모순되지는 않는다. 假說1이 市場開放에 따른 市場成果, 輸入의 內需占有率, 外國人投資企業의 內需占有率에 대한 相互 因果關係를 밝힌 一般理論이라면 假說2는 이러한 一般理論에서 고려되어야 할 韓國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假說2를 假說1에서 제시된 聯立方程式體系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市場成果의 결정에 관한 函數關係에 있어서는 輸入의 內需占有率이 市場成果에 미치는 正의 效果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것이며, 둘째 輸入의 內需占有率의 결정에 관한 式에 있어서는 市場構造的 變數들이 輸入의 內需占有率에 미치는 예상된 效果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連繫性 및 因果關係에 대한 否定的인 效果는 生産財產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이 假說2의 또 다른 주장인데, 이를 위해서 全體標本에서 生産財產業, 消費財產業을 구분하는 假變數를 사용하기로 한다. 假說2는 輸入에 대한 것일 뿐, 外國人投資에 대해서도 동일한 效果가 성립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최근의 開放化 趨勢에 따라 最終消費財 등에 대한 開放의 擴大로 輸入商品과 國內商品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

10) Lee Kyu-Uck(1988)에 근거한 假說임.

라 假說2의 有效性은 줄어들 것이다.

假說 3: "輸出과 內需市場 產業組織과의 關係는 輸入의 경우와는 달리 불확실하다. 國內企業이 內需市場과 輸出市場에서 價格差別을 할 수 없고 또한 國內市場이 보호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輸出은 輸入에 의한 경쟁과 유사하게 內需市場에서 國內企業들의 獨占力行使를 規制할 수 있다. 하지만 國內市場이 過保護되어 있을 경우에는 輸出이 오히려 反競爭的 效果를 가질 수도 있다"¹¹⁾.

國內企業들의 獨占力を 효과적으로 규제함에 있어서 輸出과 輸入이 갖는 이론적인 대칭성은 輸入의 경우 假說2에서와 같이 그 유효성이 의문시되며, 輸出의 경우에는 假說3에서와 같이 만약 輸出產業이 內需市場과 輸出市場에서 價格差別을 할 수 있을 만큼 集中度가 높거나 國內市場이 보호되어 있을 경우에는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集中度가 높은 大企業爲主의 獨寡占의 產業이 主要輸出產業으로 등장함에 따라 內需市場에서의 有效競爭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輸入規制의 緩和로 인한 市場開放은 國內輸出業者의 덤핑가능성을 줄이고 輸入競爭에 따른 壓力을 가중시킴으로써 競爭의 程度를 높일 수 있다. 集中度가 높거나 市場保護가 높은 경우 이외에도, 만약 輸出에 있어서 自發的 數量規制를

수행하기 위해 國內輸出業者들간에 輸出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內需市場에서의 競爭은 저해될 수 있다. 假說3은 극히 理論的이며 韓國의 경우에는 輸出이 獨占力行使를 規制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假說4는 輸出과 產業組織과의 關係를 보다 現實的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假說 4: "첫째, 輸出은 國內에서의 生産을 전제하기 때문에 生産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는 產業의 경우 輸出企業은 보다 큰 規模의 經濟를 실현할 것이며, 이는 輸出企業의 競爭的 優位를 야기하여 同 產業內에서의 移動障壁(mobility barrier)을 형성함과 동시에 國內 潛在 進入者에 대한 進入障壁을 형성할 것이다. 둘째, 國際市場에서 競爭力을 가진 輸出產業의 경우 그 比較優位를 內需市場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그 만큼 輸入 혹은 外國人 投資企業의 競爭에 대해서도 競爭的 優位를 형성할 것이다"¹²⁾.

假說4는 假說3에 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첫번째 假說은 規模의 經濟에 대한 新貿易理論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며, 輸出이 產業構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假說3과 같은 因果關係를 나타내지만 假說3은 輸出이 市場成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여기에서는 輸出이 市場構造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두번째 假說에서 주장하는 輸出產業의 進入阻止能力은 輸出產業의 國際競爭力의 혜택이 저렴한 價格의 형태로 內需市場에도 적용되어

11) White(1974), Caves et al. (1980), Bloch (1974) 등을 참조할 것.

12) 規模의 經濟效果에 대해서는 Pugel(1978), Yoo (1987) 및 新貿易理論의 既存文獻을 참조할 것.

있음을 假定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市場開放이 內需市場의 成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輸入 및 外國人投資의 內需占有率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假說3과 假說4는 모두 輸出이 產業組織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產業組織이 輸出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規模의 經濟와 自國生產費用, 輸出支援制度 등을 제외하고는 輸出對象國의 產業組織 및 政策에 기인함을 유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假說1은 市場成果, 輸入의 內需占有率, 外國人投資의 內需占有率 사이의 連繫性 및 因果關係에 대하여, 假說2는 假說1의 補完으로서, 假說3과 假說4는 輸出과 市場成果, 市場構造 사이의 連繫性과 因果關係에 대하여 서술하였다¹³⁾. 이상에서 제기된 主要 從屬變數들 이외에도 기존문헌에서 從屬變數로 취급된 產業組織의 主要變數로는 集中指數, 規模의 經濟, 廣告宣傳, 技術研究開發 등이 있으나 市場成果의 變數들과는 달리 市場構造, 企業行態에 대한 變數들을 從屬變數로 취급함에는 異論의 여지가 있다. 특히 時系列 統計資料의 分析이 아닌 橫斷面(cross-section) 研究의 경우에는 이들 變數를 從屬變數로 취급함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

다. 本 論文에서는 集中指數만을 從屬變數로 취급하고자 한다. 集中指數는 推定方法上 規模의 經濟에 해당하는 變數들과 동시에 說明變數로 취급될 경우 심각한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의 問題를 갖고 있기도 하다.

Ⅲ. 計量模型 및 變數의 測定

1. 計量模型

假說1~假說4에서 제기된 連繫性을 중심으로 從屬變數로 취급되는 利潤率, 輸出, 輸入, 集中指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函數關係를 열거할 수 있다¹⁴⁾.

$$P=f_1(EXP, IMP; GRVS, ADVS, RDVS, SE, CDR, RCR, KREQ, TR, ILR).....(1)$$

$$EXP=f_2(DUM5, DUM6, NTP, GREXP, RDVS, SE, CDR, RCR, KL).....(2)$$

$$IMP=f_3(P, EXP; NTP, GRIMP, KL, TR, ILR).....(3)$$

$$CR=f_4(EXP; ADVS, RDVS, SE, CDR, RCR, KREQ, TR, ILR)....(4)$$

13) 輸入, 輸出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國家間 連繫形態로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直接·合作投資와 外國技術의 導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內需市場의 產業組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또한 外國企業의 觀點에서는 輸出에 의한 海外市場浸透를 代替하는 選擇變數로서의 機能을 하기도 한다. 統計資料의 制約上 投資, 技術移轉 등이 實證分析에서 함께 취급될 수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假說提起도 생략하기로 한다.

14) 式(1)~(4)로 구성되는 計量模型은 貿易과 產業組織間의 一方的인 因果關係를 假定하지는 않지만, 한 國家의 內需市場을 對象으로 한다는 점에서 新產業組織論의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新貿易理論을 檢證하기 위한 計量模型은 두 國家間 혹은 한 國家와 其他國家群間의 交易, 投資를 취급해야 할 것이다.

式(1)~(4)에서 P , EXP , IMP , CR 은 각각 利潤率, 輸出, 輸入, 集中指數를 나타내는 變數들이다. $GRVS$, $GREXP$, $GRIMP$ 는 出荷額, 輸出, 輸入의 成長率을, $ADVS$, $RDVS$ 는 廣告 및 R&D에 따른 進入障壁을 나타낸다. SE , CDR , RCR 등은 規模의 經濟에 따른 進入障壁을, $KREQ$ 는 絶對費用優位에 따른 進入障壁을 나타낸다. KL 은 勞動의 資本裝備率을, TR , ILR 등은 輸入에 대한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NTP 는 比較優位를 각각 나타낸다. DUM 으로 표기된 變數들은 産業의 特性을 나타내는 假變數들이다. 이들 變數의 測定方法 및 問題點에 대해서는 2節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실제 推定에 있어서는 먼저 (1)~(4)의 聯立方程式體系에 따른 同時性を 무시하고 單一線型回歸分析式을 假定하여, 각각에 대하여 最小自乘法를 적용함으로써 그 결과를 (1)~(4)로 이루어지는 聯立方程式體系의 推定結果와 비교하고자 한다. 즉 同時性を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와 假說1~假說4에서 제시된 同時性を 충분히 고려했을 경우를 比較分析하고자 한다.

利潤率 決定式인 (1)의 說明變數로서 IMP , TR , ILR 을 함께 포함시킨 것은 假說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市場開放의 程度 및 輸入의 內需占有率이 모두 市場成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P 를 포함시킨 것은 輸出과 市場成果間의 連繫性에 대한 假說3과 假說4에서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이외의 變數들은 $GRVS$, $ADVS$, $RDVS$, SE , CDR , RCR , $KREQ$ 등 모두 市場構造 혹은 企業行態와 관련된 變數들로서 經驗的 産業組織論에서 사용되어온 變數들이다.

式(1)에 관한 한, 假說1은 충분히 반영되었

다고 할 수 있으나 假說2, 假說3, 假說4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假說2의 경우에 있어서는, 輸入이 內需市場의 市場成果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韓國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消費財産業의 假變數인 $DUM1$ 을 이용하여 IMP 를 수정한 IMP_{DUM1} 을 IMP 대신 사용하든지, 아니면 IMP 와 $DUM1$ 을 각각 독립된 說明變數로 사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假說3과 假說4에 따르면 輸出이 內需市場의 成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國內産業에 대한 保護가 낮고 國內企業의 價格差別行爲가 불가능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國內産業에 대한 保護가 낮고 集中指數 또한 낮은 産業을 나타내는 假變數인 $DUM4$ 를 이용한 EXP_{DUM4} 를 EXP 대신 사용하든지, EXP 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DUM4$ 를 별도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DUM4$ 대신 國內産業에 대한 保護가 높고 集中指數 또한 높은 産業을 나타내는 $DUM5$ 를 이용하여 假說3과 假說4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여 式(1)에 대한 代案으로서 다음을 제시한다.

$$P = g_1(EXP_{DUM4}, IMP_{DUM1}, GRVS, ADVS, RDVS, SE, CDR, RCR, KREQ, TR, ILR) \dots \dots \dots (1)'$$

$$P = h_1(EXP, DUM4, IMP, DUM1, GRVS, ADVS, RDVS, SE, CDR, RCR, KREQ, TR, ILR) \dots \dots \dots (1)''$$

(1)', (1)''에서 EXP_{DUM4} , $DUM4$ 대신 EXP_{DUM5} , $DUM5$ 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假說3에 따라 EXP_{DUM5} , $DUM5$ 는 P

에 대하여 正의 效果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輸出實績의 決定式인 (2)에 있어서 *NTP*, *KL* 등을 포함시킨 것은 比較優位 및 資源賦存度가 輸出과 관련이 있음을 반영시킨 것에 불과하다. *RDVS*를 포함한 것은 활발한 研究開發이 輸出을 促進할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SE*, *CDR*, *RCR*은 規模의 經濟에 관한 각종 指標들로서 規模의 經濟와 輸出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DUM5*와 *DUM6*는 國內產業의 獨寡占構造, 保護나 市場規模 등이 輸出에 影響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輸出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政府의 각종 支援手段 및 輸出相對國의 輸入政策, 市場構造的 特性이 式 (2)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중요한 問題점으로 지적된다.

輸入의 內需占有率의 決定式인 (3)에 있어서 *P*를 포함시킨 것은 다른 조건이 같은 한, 內需市場에서의 利潤率이 높을수록 海外로부터의 流入이 클 것이라는 假說1의 주장에 근거한다. 假說2는 이러한 주장의 有效性이 극히 제한적임을 암시하는바, *EXP*를 또 하나의 說明變數로 추가하여 "輸出을 위한 輸入"에 대한 假說2의 주장을 반영하고자 한다. 假說2가 生産財產業의 경우에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EXP*만을 포함시키는 대신에 아래의 式 (3)'에서와 같이 *EXPDUM2*를 사용하기도 했다. *NTP*, *KL*을 포함시킨 것은 式 (2)에서와 같은 이유이며 *TR*, *ILR* 등은 輸入에 대한 市場開放의 程度를 나타내므로 당연히 포함된다.

$$IMP = g_3(P, EXPDUM2, NTP, GRIMP, + KL, TR, ILR).....(3)'$$

集中指數의 決定式인 (4)에 있어서는 *ADVS*, *RDVS*, *SE*, *CDR*, *RCR*, *KREQ* 등 市場構造的 變數들이 集中指數를 결정한다고 假定하고 있다. *CR*에는 2節에서 설명되듯이 *H*, *CR3*, *DCR3* 등의 측정치가 있으며 *TR*, *ILR* 등 市場開放의 程度를 나타내는 變數들 또한 集中率에 影響을 미친다는 可能性을 반영한다. 또한 假說4에 따라 輸出이 規模의 經濟效果 등을 통하여 獨寡占의 市場構造를 가져올 수 있는 可能性을 알아보기 위해 *EXP*를 포함시킨다.

2. 主要變數의 測定

1984년 改定된 韓國標準產業分類(KSIC)의 細分類製造業들 중 統計資料가 수집가능했던 98個 細分類製造業을 최종표본으로 하여 II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主要變數들을 측정했다¹⁵⁾. 측정에 사용된 統計資料는 可用度의 理由로 1983년을 基準年度로 하며, 鑛工業統計 調查報告書, 企業經營分析, 韓國開發研究院의 貿易統計테이프, 產業聯關表 등에서 얻었는데 일부 變數에 대한 측정에는 既存研究資料들을 이용하기도 했다¹⁶⁾.

變數의 測定에 있어서 가장 큰 問題점은 相異한 出處의 相異한 產業分類體系間의 調和(concordance)였다. 이는 CCCN으로 분류된 統計를 KSIC로, 혹은 投入產出表의 產業分類로 주어진 統計를 KSIC로 재편성할 때 나타나는 問題로서, 기본적으로는 韓國開發研究院에서 작성된 三者間 對照表를 이용했으며 각

15) 제외된 7개 製造業은 KSIC 3133, 3140, 3213, 3423, 3540, 3814, 3845 등이다.

16) 計量模型의 性格上 檢證對象期間은 輸入自由化가 많이 진척된 最近 時點이 바람직하지만, 主要變數들에 대한 統計資料가 可用했던 1983년도를 基準年度로 査定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産業分類體系에서 주어진 産業名을 재검토하여 對照表의 妥當性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KSIC로 분류된 統計資料일지라도 對照表 자체의 誤差問題로 인하여 統計誤差가 加重된다는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는 없다.

가. 利潤率

利潤率의 측정은 李奎億(1981)에서 제시된 여러가지 測定基準을 참고로 다음과 같은 推定値를 사용하였다¹⁷⁾.

$$P1 = \frac{\text{附加價值} - \text{給與額}}{\text{附加價值}}$$

$$P2 = \frac{\text{附加價值} - \text{給與額} - \text{賃借料} - \text{廣告宣傳費}}{\text{出荷額}}$$

$$P3 = \frac{\text{出荷額} - \text{給與額} - \text{直接生産費} - \text{間接生産費}}{\text{出荷額}}$$

$$P4 = \frac{\text{賣出總利益}}{\text{賣出額}}$$

$$P5 = \frac{\text{營業利益}}{\text{賣出額}}$$

$$P6 = \frac{\text{經常利益}}{\text{資産}}$$

$$P7 = \frac{\text{經常利益} + \text{支給利子} + \text{割り料} - \text{法人稅}}{\text{資産}}$$

企業經營分析의 利潤率 概念을 사용하기 위해서 企業經營分析의 調査對象産業의 分類와 KSIC에 따른 標本産業의 分類를 비교한 결과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産業對照表를 별도로 작성하여 企業經營分析의 統計値를 KSIC의 標本産業으로 재편성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産業에 대해서는 企業經營分析의 統計數値를 몇개의 標本産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기도 했다. 그러나 利潤率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P1~P7이 內需市場의 市場成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P1~P7은 輸出을 포함한 販賣領域 전체에 대한 收益性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實證分析에서 필요로 하는 利潤率은 輸出을 除外한 國內企業(外國人投資企業 포함)들의 收益性이어야 하기 때문에, 輸出市場과 內需市場에서의 收益性의 隔差가 클수록, 또한 輸出, 輸入의 比重이 클수록 誤差는 크게 마련이다. 內需市場에서의 收益性에 대한 통계자료가 可用함에 따라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外國人投資企業들의 利潤率, 國內企業들의 利潤率 및 輸入商品의 利潤率을 同一한 方法으로 측정해서 각각 별도의 從屬變數로 사용하는 것이다. P1~P7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은 實證分析의 結果를 假說1~假說4와 대조,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

나. 對外去來關聯變數

輸出, 輸入과 관련해서 다음의 變數들을 측정하였다.

$$EXP = \frac{\text{輸出額}}{\text{出荷額}}$$

$$IMP = \frac{\text{輸入額}}{\text{出荷額} - \text{輸出額} + \text{輸入額}}$$

$$EXPDUM2 = EXP \times DUM2$$

17) P1, P2, P3는 産業센서스報告書(1983)에서, P4, P5, P6, P7은 企業經營分析(1984)에서 각각 測定値를 구했으며 各用語의 定義에 대해서는 이들을 참고할 것.

$$EXPDUM4 = EXP \times DUM4$$

$$EXPDUM5 = EXP \times DUM5$$

$$IMPDUM1 = IMP \times DUM1$$

$$NTP1 = \frac{\text{輸出額} - \text{輸入額}}{\text{出荷額} + \text{輸入額}}$$

$$NTP2 = \frac{\text{輸出額} - \text{輸入額}}{\text{輸出額} + \text{輸入額}}$$

輸出額, 輸入額は 韓國開發研究院의 貿易統計 데이터에서 구했으며 이를 CCCN-KSIC間의 對照表를 이용하여 CCCN 8-digit으로 명시된 輸出額, 輸入額을 먼저 KSIC의 8-digit으로 바꾼 뒤 이를 KSIC의 4-digit으로 合算하였다. 出荷額は 産業센서스에서 그대로 사용했다.

測定式에서 보듯이 *EXP*는 出荷額에 대한 輸出의 比重을, *IMP*는 輸入의 內需市場占有率을 나타내며, *NTP1*, *NTP2*는 각각 輸出, 輸入의 相對的 位置(net trade position)를 나타내는 變數들로서 前者는 總供給에 대하여, 後者는 總交易量에 대한 比重으로 표시했다. 특히 *NTP2*의 경우에는 産業의 比較優位를 나타내는 指數로서 사용되고 있음에 유의한다. 위의 變數들 이외에도 總內需市場의 規模에 대한 出荷額의 比重을 측정했는데 이는 對外去來에 따른 集中指數의 誤差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된바 뒤에 언급하기로 한다.

DUM1, *DUM2*, *DUM4*, *DUM5* 등은 産業의 特性을 나타내는 假變數들로서 本節(라)에서 소개된다.

다. 成長率

成長率は 出荷額, 輸出額, 輸入額의 成長率 등 세가지를 측정하였다.

GRVS = 1978~1983 사이 出荷額의 年平均 複利成長率

GREXP = 1978~1983 사이 輸出額의 年平均 複利成長率

GRIMP = 1978~1983 사이 輸入額의 年平均 複利成長率

*GRVS*를 측정함에 있어서 1978년과 1983년의 鑛工業統計는 상이한 分類體系(新, 舊)를 갖고 있으므로 1978년의 産業別 出荷額을 1983년의 産業分類로 분류하는 作業 대신 *GRVS*를 1983년과 1986년 사이의 出荷額 成長率로 대체하였다. 이는 産業別 增加率이 해당 기간중 꾸준한 추세를 보일 것을 假定한 것인데 간단한 확인 결과 약간의 誤差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GREXP*와 *GRIMP*는 CCCN分類로 된 資料를 이용했기 때문에 統計值의 오류는 CCCN과 KSIC間의 對照表에 기인한 誤差에만 국한되었다. 成長率 指標들은 새로운 企業의 市場進入에 正의 效果를 갖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既存企業들의 短期收益性에 대한 正의 效果 및 輸出, 輸入의 成長率이 輸出, 輸入의 比重에 대해 갖는 正의 效果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라. 假變數(Dummy Variables)

産業別 特性에 대한 假變數들을 여러 기준에서 측정하였다. 假變數 중 일부는 직접 回歸分析의 說明變數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主要說明變數들과 함께 複合變數를 형성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複合變數의 形成過程은 本文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begin{aligned}
DUM1 &= \begin{cases} 1, \text{消費財의 경우} \\ 0, \text{生産財의 경우} \end{cases} \\
DUM2 &= \begin{cases} 1, \text{生産財의 경우} \\ 0, \text{消費財의 경우} \end{cases} \\
DUM3 &= \begin{cases} 1, \text{非耐久消費財의 경우} \\ 0, \text{耐久消費財 혹은 生産財의 경우} \end{cases} \\
DUM4 &= \begin{cases} 1, \text{集中指數, 關稅率이 평균이하,} \\ \text{輸入自由化率이 평균이상일 경우} \\ 0, \text{기타의 경우} \end{cases} \\
DUM5 &= \begin{cases} 1, \text{集中指數, 關稅率이 평균이상,} \\ \text{輸入自由化率이 평균이하일 경우} \\ 0, \text{기타의 경우} \end{cases} \\
DUM6 &= \begin{cases} 1, \text{(出荷額/最小效率規模)가} \\ \text{평균이하일 경우} \\ 0, \text{기타의 경우} \end{cases} \\
DUM7 &= \begin{cases} 1, \text{費用劣位指數가 0.9 이하인 경우} \\ 0, \text{기타의 경우} \end{cases}
\end{aligned}$$

DUM1, *DUM2*, *DUM3*는 韓國開發研究院에서 작성된 자료를 이용했는데 消費財, 生産財의 구별은 投入產出表에서의 最終消費需要比率이 50% 이상이나 그 이하이나에 따라, 非耐久消費財, 耐久消費財의 경우에는 既存文獻에서 제시된 分類를 따라 작성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細細分類에서 細分類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出荷額을 基準으로 했다는 恣意性 등의 問題點을 갖고 있다. *DUM4*는 集中指數와 內需市場의 保護가 모두 낮은 産業과 그렇지 않은 産業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DUM5*는 集中指數와 內需市場의 保護가 모두 높은 産業과 그렇지 않은 産業을 구별하기 위

해 사용된다¹⁸⁾. *DUM6*는 市場의 規模를 나타내는 (出荷額/最小效率規模)가 평균이하인 産業과 그렇지 않은 産業을, *DUM7*은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에 增업된 1인당 附加價値의 隔差가 큰 産業과 그렇지 않은 産業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集中指數, 最小效率規模, 費用劣位指數, 關稅率, 輸入自由化率 등은 뒤에 언급된다.

마. 市場構造

市場構造의 特性을 나타내는 變數들은 既存 SCP模型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變數들이다. 이들 중에는 각각에 대하여 약간씩의 수정을 거친 代替變數들이 많이 있다.

$$ADVS1 = \frac{\text{廣告宣傳費用}}{\text{出荷額}}$$

$$ADVS2 = ADVS1 \times DUM1$$

$$ADVS3 = ADVS1 \times DUM3$$

$$RDVS = \frac{\text{研究開發費用}}{\text{出荷額}}$$

$$SE1 = \frac{\text{最小效率規模}}{\text{出荷額}}$$

$$SE2 = SE1 \times DUM7$$

$$CDR1 = \frac{\text{小規模事業體의 從業員當 附加價値}}{\text{大規模事業體의 從業員當 附加價値}}$$

$$CDR2 = CDR1 \times DUM6$$

$$RCR = CR3 - (3 \times SE1)$$

$$KREQ1 = \text{總資産} \times SE1$$

$$KREQ2 = KREQ1 \times DUM7$$

$$KL = \frac{\text{總資産-減價償却費}}{\text{總雇傭}}$$

$$H = \text{허핀달(Herfindahl) 指數}$$

$$CR3 = \text{上位 3企業 集中率 (出荷額基準)}$$

18) 左承喜(1988)에 따르면 韓國의 경우 *DUM4*와 *DUM5*를 결정하는 集中指數, 關稅率, 輸入自由化率 등은 市場開放決定過程과 관련된 政治經濟學的 理由 때문에 相關關係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相關關係가 *DUM4*, *DUM5*를 本文에서와 같이 定義함에 問題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DCR3 = CR3 \times \left(\frac{\text{出荷額}}{\text{出荷額} - \text{輸出額} + \text{輸入額}} \right)$$

이상은 市場構造를 나타내는 각종 變數들이다. *ADVS1*은 商品差別에 따른 進入障壁을 나타내는 變數인데, *ADVS2*는 消費財의 경우에만 *ADVS1*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假說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ADVS3*의 경우에는 進入障壁으로서의 廣告宣傳의 효과가 非耐久消費財에만 나타난다는 Porter(1974)의 주장에서 유래, 經驗的 分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RDVS*는 研究開發에 따른 既存企業의 技術의 優位가 전통적 進入障壁과는 별도로 새로운 進入障壁을 형성한다는 假說에 따라 說明變數로 선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出荷額에 대한 研究開發費用의 比率 대신 研究開發從事人員이 總雇傭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經驗적 分析에서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SE1*은 生産에 있어서의 規模의 經濟를 나타내는 變數로서, 最小效率規模(minimum efficient scale)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鑛工業統計를 중심으로 한 Weiss(1963)의 中位點工場規模(mid-point plant size)를 사용하였다. 즉 總雇傭의 上位 50%를 차지하는 大規模事業體들의 業體當 平均出荷額으로서 最小效率規模를 측정하였는데, 中位點을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總雇傭 대신 附加價值 혹은 出荷額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最小效率規模가 出荷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란 곧 最小效

率規模의 工場이 얼마 만큼의 市場占有率을 가질 것인가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측정과정으로 계산된 *SE1*은 앞서도 지적되었듯이 集中指數와 깊은 正의 相關關係를 갖게 되며 兩者가 함께 說明變數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多重共線性的 問題를 야기한다. *SE2*는 *SE1*에 *DUM7*을 곱해서 구한 變數인데 이는 *SE1*이 進入障壁의 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大規模工場에 비해 小規模工場の 費用劣位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Caves et al. (1975, 1980)의 주장에 기인한다. 대개의 경우 *DUM7*을 좌우하는 費用劣位指數의 限界值를 0.8 혹은 0.9로 한다. 즉 費用劣位指數가 0.8 혹은 0.9 이하일 정도로 小規模工場の 費用不利가 뚜렷할 경우에만 *SE1*은 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最小效率規模가 費用曲線의 最低點에서의 生産量을 나타낸다면 *CDR1*(費用劣位指數; cost disadvantage ratio)은 最小效率規模 生産量에 이르기 전의 費用曲線의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Caves et al.(1975)은 規模의 經濟의 進入障壁效果는 *SE1*과 *CDR1*을 함께 說明變數로 사용함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CDR1*이 작을수록 小規模生産에 따른 規模의 不經濟(diseconomies of scale)가 클 것이다. *CDR1*의 측정에서 小規模工場과 大規模工場の 구분 역시 出荷額, 附加價值, 雇傭 등 여러 기준이 가능하나 여기에서는 總雇傭을 사용하였다¹⁹⁾. *CDR2*는 *CDR1*에 *DUM6*를 곱함으로써 市場規模가 상대적으로 작은 産業에 대한 費用劣位만을 나타내었다. Baldwin and Gorecki(1983)에 의하면 *CDR1*은 市場規模가 작을 경우에만 小規模工場の 費用不利가 進入障壁을 형성한다고 주장

19) *SE1* 및 *CDR1*을 鑛工業統計로부터 추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小規模인 從業員 5~9人的 事業體들을 제외했음을 밝혀 둔다.

된다.

RCR(residual concentration ratio: 殘餘集中指數)은 上位 3企業 集中率(*CR3*)에서 *SE1*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뺀 것으로 Davies(1980)에 의하여 集中率과 最小效率規模 사이의 統計的 相關關係에 대한 관측에서부터 고안된 것이다. 실제로 Jones et al.(1973)은 캐나다의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集中指數와 *SE1*간의 多重共線性問題를 지적한 바 있다. *RCR*은 *CR3*에서 *SE1*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殘餘分인데 *CR3*가 企業중심으로, *SE1*이 事業體중심으로 측정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RCR*은 企業次元에서의 規模의 經濟 效果를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KREQ1*은 絶對費用優位에 따른 進入障壁을 나타내기 위한 變數로서 경험적 분석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측정치이다. *KREQ2*는 *SE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小規模事業體의 絶對費用不利는 *CDR1*이 어느 限界值보다 작을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KL*은 從業員當資本裝備率로서 전통적인 市場構造의 變數는 아니나 要素賦存狀態를 나타내는 主要變數로 사용된다.

H, *CR3* 등의 集中指數들은 輸出을 포함한 企業들의 出荷額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輸出을 제외하고 輸入을 포함한 內需市場에서의 集中率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II章에서 지적된 精確한 集中指數의 測定問題는 결국 生産集中指數를 販賣市場集中指數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데 資料의 제약상 後者の 精確한 測定值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DCR3*는 *CR3*의 問題點을 보완하기 위하여 *CR3*에 교정치를 곱해서 추정된 集中指數의 수정치이다. 교정치의 構造上 輸出

이 輸入보다 큰 產業의 경우에는 *CR3*를 상향 조정하며, 輸入이 輸出보다 클 경우에는 內需市場에서의 실지 集中率은 國內企業들(外國人投資企業 포함)만의 占有率보다 작을 것이므로 *CR3*를 하향조정한다. *CR3*를 內需市場의 集中率에 접근하도록 교정해 주는 방법으로는 *DCR3*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는 *CR3* 혹은 *DCR3*를 독립된 說明變數로서 그대로 사용하되 *EXP*와 *IMP*를 별도의 說明變數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EXP*나 *IMP*가 聯立方程式體系의 從屬變數일 경우에는 市場成果에 관한 回歸分析式에 *EXP*와 *IMP*를 포함시키는 것은 *CR3*에 대한 교정 이상의 意味를 가짐은 물론이다. *DCR3*를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된 통계 자료에 있어서 出荷額은 鑛工業統計에서, 輸出額, 輸入額은 關稅廳資料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DCR3*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교정치의 수치들이 일부 產業들에 있어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H*, *CR3*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統計資料의 상이한 出處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는 *EXP*, *IMP*에도 영향을 미치나 상대적 크기만 정확하다면 分析의 結果를 왜곡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變數들 중 *H*, *CR3*를 제외한 變數들은 産業센서스(1983)에서 계산되었으며 *H*, *CR3* 등은 韓國開發研究院이 추정된 자료를 이용했다. *H*, *CR3* 등은 細細分類產業에 대하여 추정된 것을 出荷額을 이용하여 細分類產業에 대한 加重平均을 계산, 이를 사용했다. 輸出을 제외한 出荷額만에 대한 上位 3企業 集中率도 可用했으나 輸入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誤差가 있다고 보며 실제 수치

들도 CR3와 유사했다.

바. 輸入에 대한 市場의 開放

輸入에 대한 市場開放의 程度를 결정하는 것은 關稅 및 非關稅障壁인데 韓國의 경우에는 主要 非關稅障壁으로서 政府의 期別公告, 特別法, 輸入監視, 輸入先多邊化, 間接的 輸入 規制 등을 들 수 있다. 關稅 및 非關稅障壁으로 國內産業이 어느 정도 보호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指數로는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 이 있다. 本 論文에서는 韓國開發研究院 (1982)에서 측정한 實績關稅率(*TR*), 期別公告와 特別法을 함께 고려한 輸入自由化率(*ILR*), 名目保護率(*NPR*), Balassa式 實效保護率 (*RPR1*) 및 Corden式 實效保護率(*RPR2*)을 사용하였다²⁰⁾.

위의 다섯가지 變數들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問題點은 대부분의 경우 1982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연도인 1983년과의 誤差가 예상된다는 점과 각각의 통계치가 産業聯關表의 基本部門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KSIC의 細分類를 연결해 주는 對照表를 작성하여 出荷額을 기준으로 한 加重平均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誤差가 있다는 문제이다. 실제로 위의 變數들을 說明變數로 사용할 경우에는 *TR*과 *ILR*만을 포함시켜 市場開放의 程度를 측정하든지, 아니면 이 대신 *NPR*, *RPR1* 및 *RPR2* 중 어느 하나만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²¹⁾.

IV. 實證分析 結果

실제 推定에 있어서는 單一線型回歸分析模型을 *P*, *EXP*, *IMP*, *CR*의 각각에 대하여 假定하고 (1), (1)', (1)", (2), (3), (3)', (4)에 대한 最小自乘法 推定結果를 구했으며, (1)~(4)의 聯立方程式體系는 二段階 및 三段階 最小自乘法 推定結果를 구했다. 聯立方程式體系의 推定에는 (1), (3) 대신 (1)', (1)", (3)' 등의 代案도 사용되었음은 불문이다.

<表 1>은 *P1*~*P7*을 從屬變數로 하는 式 (1)의 單一線型回歸分析의 最小自乘法 推定結果를 나타낸다. 상이한 利潤率 指標의 사용은 대개의 경우 回歸分析係數 推定值의 符號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나 統計的 有意性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또한 企業經營分析의 利潤率 測定值인 *P4*~*P7*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F*統計值를 기록, 回歸分析의 有意性이 의문시되었다. *IMP*, *ADV3*, *RDVS*, *SE2*, *CDR2*, *RCR*, *KREQ2*, *ILR* 등은 대체로 예상된 符號를 나타내지만 *EXP*, *GRVS*, *TR*의 경우에는 예상과 반대되는 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EXP*의 경우 式 (1)에서는 假說3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利潤率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효과가 대부분 負의 效果로 나타났으며, *P1*, *P5*의 경우 상당한 有意性이 있다. 이는 앞서 지적되었듯이 利潤率의 測定值가 輸出市場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으며 韓國의 경우 輸出市場보다 內需市場에서 더 높은 利潤을 나타내는 이유로 설명될 수도 있으며, 內需

20) 각 變數의 定義,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韓國開發研究院 (1982) 및 楊秀吉(1984)을 참조할 것.

21) 左承喜(1988)는 市場開放의 政治經濟學的 決定過程을 分析함에 있어서 *TR*, *NPR*, *RPR*間의 낮은 相關關係를 지적하고 이들 각자를 상호 대체가능한 변수로 취급하는 대신 전부를 동시에 說明變數로 사용함으로써 國內市場을 保護함에 있어서 각 變數에 固有한 效果를 분리했다.

〈表 1〉 利潤率 決定式 (1)의 推定¹⁾

利潤率 說明變數	P1	P2	P3	P4	P5	P6	P7
常數	71.736*** (22.64)	26.068*** (9.33)	22.435*** (8.90)	21.427*** (8.26)	6.964*** (5.77)	5.268*** (3.38)	8.007*** (8.24)
EXP	-0.014** (-2.18)	-0.001 (-0.13)	-0.003 (-0.50)	-0.006 (-1.17)	-0.003* (-1.35)	-0.001 (-0.25)	0.001 (0.25)
IMP	-0.009* (-1.39)	-0.001 (-0.14)	-0.001 (-0.09)	0.001 (0.03)	-0.001 (-0.29)	0.002 (0.64)	0.001 (0.30)
GRVS	-0.101** (-2.15)	-0.011 (-0.26)	-0.052** (-1.38)	-0.017 (-0.44)	-0.032** (-1.79)	-0.017 (-0.75)	-0.022** (-1.59)
ADVS3	317.467*** (2.71)	233.732** (2.26)	292.275*** (3.14)	377.772*** (3.94)	-12.612 (-0.28)	50.018 (0.87)	4.836 (0.13)
RDVS	138.993 (0.69)	839.118*** (4.71)	609.116*** (3.80)	74.893 (0.45)	60.259 (0.78)	14.360 (0.14)	42.788 (0.69)
SE2	28.001** (2.06)	-11.104 (-0.92)	15.044* (1.39)	15.098* (1.36)	2.278 (0.44)	7.138 (1.07)	8.803** (2.11)
CDR2	-0.334 (-0.17)	-1.552 (-0.91)	-2.132* (-1.39)	-1.080 (-0.68)	-0.008 (-0.01)	-0.212 (-0.22)	-0.322 (-0.54)
RCR	12.196*** (2.77)	-3.906 (-1.01)	-4.085 (-1.17)	5.046* (1.40)	2.529* (1.51)	-1.690 (-0.78)	1.905* (1.41)
KREQ2	0.001* (1.34)	-0.001 (-0.45)	-0.001 (-0.05)	-0.001 (-0.39)	0.001 (0.61)	0.001 (0.42)	0.001 (0.90)
TR	-0.126** (-1.91)	-0.004 (-0.07)	-0.087** (-1.67)	-0.023 (-0.42)	-0.010 (-0.42)	0.024 (0.76)	0.030* (1.50)
ILR	-0.077*** (-2.83)	0.003 (0.13)	-0.003 (-0.13)	-0.002 (-0.08)	0.009 (0.91)	-0.019* (-1.46)	-0.001 (-0.03)
R ²	0.480	0.264	0.270	0.223	0.125	0.075	0.094
F	7.223	2.808	2.808	2.242	1.114	0.632	0.809

註: 1) 컷번째 숫자는 回歸分析係數의 推定值를, ()안의 숫자는 推定值의 t값을 나타내며 推定值에 표시된 *, **, ***는 각각 單側檢定(one-tailed test)일 경우 10%, 5%, 1%에서의 有意水準을 나타냄.

市場의 集中指數나 保護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 假說3의 주장에 반드시 相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로 企業經營分析(1983~1986)에 의하면 輸出企業(總賣出額의 50% 이상을 輸出하는 企業)의 收益性이 內需企業의 收益性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본문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附表 2 參照). 하지만 企業經營分析의 경우에는 標本企業 利潤率의 單純平均만을 제시하여 產業間 隔差등을 무시한 것이기에 回歸分析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의문시된다. GRVS가 利潤率에

負의 效果를 갖는 것은 GRVS가 內需의 擴大가 아닌 輸出의 擴大를 주로 반영하거나, 혹은 成長에 따른 短期的인 超過利潤(windfall profit)이 실현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TR의 경우 기대와는 달리 P6, P7을 제외하고는 負의 效果를 나타내는데, 이는 TR이 市場開放을 통하여 市場成果를 向上함에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다. 外國의 경우에는 TR과 利潤率間의 負의 關係를 TR의 상승으로 인한 外國人投資의 增加가 市場成果를 間接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이 韓國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ILR의 경우 P1에 대해서만은 상당한 有意性을 가진 負의 效果를 나타내는데 韓國의 경우 各種 非關稅輸入規制가 利潤率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說明變數의 각종 代替變數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결과는 유사했음을 밝혀 둔다.

〈表 2〉는 P1을 從屬變數로 했을 경우 式(1)' 및 式(1)''에 대한 推定結果를 나타낸다. 〈表 1〉에서와 같이 *GRVS*, *ADVS3*, *RDVS*, *SE2*, *CDR2*, *RGR*, *KREQ2*, *TR*, *ILR* 등이 모두 說明變數로서 포함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係數의 推定值들은 〈表 1〉에서의 P1에 대한 推定值들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1)'의 推定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EXP*, *EXPDUM4*, *EXPDUM5*의 係數들에 대한 推定值의 상이한 有意性이다. 즉 *EXPDUM4*의 경우 〈表 1〉의 *EXP*와 비교할 때 극히 낮은 有意性을 나타내었고, *EXPDUM5*의 경우 〈表 1〉의 *EXP*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有意性을 나타내었다. 즉 集中指數와 產業保護가 낮은 產業에 있어서는 輸出이 利潤率에 대해 가지는 負의 效果가 의미있는 統計的 有意性을 가지지 못하지만 集中指數와 產業保護가 높은 產業의 경우에는 輸出이 利潤率에 대해 가지는 負의 效果가 더욱 강한 有意性을 가진다. 즉 〈表 1〉에서와 같이 假說3이 반영되지 않았던 式(1)의 推定結果와 假說3이 반영된 式(1)의 推定結果를 비교해 볼 때 同 假說과 관

〈表 2〉 利潤率 決定式 (1)', (1)''의 推定¹⁾

說明變數 ²⁾	從屬變數 = P1			
	式(1)'		式(1)''	
常數	71.508*** (21.91)	71.455*** (22.70)	74.907*** (22.69)	74.419*** (22.58)
<i>EXP</i>	—	—	-0.010** (-1.67)	-0.010** (-1.72)
<i>EXPDUM4</i>	-0.003 (-0.32)	—	—	—
<i>EXPDUM5</i>	—	-0.031*** (-2.55)	—	—
<i>DUM4</i>	—	—	-0.075 (-0.93)	—
<i>DUM5</i>	—	—	—	2.045 (0.84)
<i>IMP</i>	—	—	-0.008 (-1.17)	-0.008 (-1.11)
<i>IMPDUM1</i>	-0.010* (-1.37)	-0.010* (-1.40)	—	—
<i>DUM1</i>	—	—	-5.192*** (-2.78)	-5.309*** (-2.89)
<i>R</i> ²	0.452	0.490	0.525	0.529
<i>F</i>	6.440	7.500	7.148	7.442

註: 1) 表記方法은 〈表 1〉에서와 동일함.

2) 실지추정에서는 〈表 1〉과 같은 說明變數들이 모두 사용되었음.

런된 White(1974), Bloch(1974), Caves et al. (1980) 등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밖의 결과는 內需市場과 輸出市場의 利潤率 隔差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이는 (1)"의 推定에 있어서 利潤率에 대한 *EXP*의 負의 效果는 그 統計的 有意性이 감소되는 대신 *DUM4*, *DUM5*의 경우 有意性은 낮지만 기대된 符號를 나타내는 사실로도 설명된다. 즉 集中指數, 保護가 낮은 產業은 낮은 利潤率을, 集中指數, 保護가 높은 產業은 높은 利潤率을 나타내므로 假說3의 주장은 부분적인 타당성을 회복하는 대신 市場成果에 대한 輸出의 否定的 效果는 *P1* 測定値의 歪曲 및 기타 要因들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輸入의 경우 (1)'에 있어서는 <表 1>의 경우와 다른 점이 없다. (1)"의 推定에서는 利潤率에 대한 輸入의 負의 效果는 有意性이 다소 감소되나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기할 사항은 消費財의 경우에는 利潤率의 저하현상이 뚜렷하다. 이는 假說2를 뒷받침해 주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表 3>에서는 式(2), (3), (3)', (4)의 推定結果를 소개한다. 輸出의 경우 *RDVS*와 *CDR2*를 제외한 모든 變數들이 예상된 부호를 가진다. *RDVS*의 경우 그 有意性은 극히 낮으며, *CDR2*의 경우 企業間의 費用優劣과 輸出間의 連繫性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要因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DUM6*에서 보듯이 市場의 規模가 正의 效果를 가지며 *SE2*, *RCR* 등 規模의 經濟와 輸出은 뚜렷한 正의 關係를 가짐으로써 規模의 經濟와 輸出이 갖는 正의 關係를 뒷받침한다.

輸入에 관한 (3), (3)'의 推定에 있어서는

기대와는 달리 利潤率이 輸入에 대하여 負의 效果를 가지는데 이는 假說2에 연유할 가능성이 있다. 기타 變數들은 統計的 有意性은 낮으나 대부분 기대된 符號를 나타낸다. *TR* 및 *ILR*의 경우 利潤率에 대한 效果와는 달리 輸入의 內需占有率에 대해서는 *TR*이 예상대로 有意性이 있는 負의 效果를 나타내는 반면 *ILR*의 경우 거의 有意性이 없다. 集中指數의 決定式인 (4)의 推定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變數들이 기대된 符號를 나타내며 統計的 有意性 또한 높은 수준이다. 특히 *EXP*, *IMP*는 兩者 모두 集中指數와 正의 關係를 갖는데 *EXP*의 경우에는 假說4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IMP*의 경우에는 *CR* 혹은 *H*가 輸入을 고려한 集中指數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으므로 輸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產業의 경우 集中指數가 下向調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表 4>는 (1)~(4)로 구성되는 聯立方程式 體系를 3段階 最小自乘法으로 推定한 결과이다. 利潤率에 대한 構造式의 경우 <表 1>, <表 2>와 비교해 볼 때 *GRVS*, *TR* 등이 가졌던 有意性이 높은 負의 關係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假說에 좀 더 접근된 結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EXP*, *IMP*의 *P1*에 대한 효과인데 *EXP*의 경우 더욱 有意性이 높은 負의 關係를 나타내며, *IMP*의 경우에는 <表 1>, <表 2>에서 나타났던 負의 關係가 正의 關係로 변화함에 주목한다. 먼저 *IMP*의 *P1*에 대한 正의 效果는 비록 有意性은 없지만 單一回歸分析에서 나타난 負의 效果를 反轉시키면서 輸入에 따른 市場成果向上의 效果가 韓國의 경우에는 미약할 것이라는 假說2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表 3〉 輸出, 輸入, 集中指數의 決定式 推定¹⁾

	<i>EXP</i>	<i>IMP</i> : 式(3), (3)'		<i>H</i>	<i>CR3</i>
常數	-25.449 (-0.89)	233.308** (1.74)	244.009** (1.83)	-0.040 (-0.99)	0.126*** (3.43)
<i>P1</i>	-	-2.306 (-1.244)	-2.416* (-1.30)	-	-
<i>EXP</i>	-	0.014 (0.14)	-	0.001 (1.15)	0.001* (1.50)
<i>EXPDUM2</i>	-	-	-0.056 (-0.35)	-	-
<i>DUM5</i>	10.422 (0.44)	-	-	-	-
<i>DUM6</i>	-74.937** (-1.78)	-	-	-	-
<i>IMP</i>	-	-	-	0.001* (1.64)	0.001* (1.67)
<i>NTP2</i>	0.519*** (2.70)	-0.226 (-1.09)	-0.214 (-1.07)	-	-
<i>GREXP</i>	0.155 (0.41)	-	-	-	-
<i>GRIMP</i>	-	0.222 (0.28)	0.242 (0.31)	-	-
<i>ADVS3</i>	-	-	-	1.439 (0.89)	0.145 (0.99)
<i>RDVS</i>	-394.992 (-0.18)	-	-	-3.204 (-1.16)	-2.290 (-0.91)
<i>SE2</i>	419.009*** (2.30)	-	-	1.961*** (10.599)	2.381*** (14.18)
<i>CDR2</i>	66.829** (1.70)	-	-	0.053** (2.02)	0.151*** (6.29)
<i>RCR</i>	145.998*** (2.38)	-	-	0.506*** (8.52)	0.774*** (14.36)
<i>KREQ2</i>	-	-	-	-0.001*** (-2.71)	-0.001 (-0.14)
<i>KL</i>	-0.001 (-0.12)	0.001 (0.25)	0.001 (0.26)	-	-
<i>TR</i>	-	-1.75** (-2.06)	-1.80** (-1.98)	0.002** (2.00)	0.001** (1.85)
<i>ILR</i>	-	0.046 (0.12)	-0.175 (-0.42)	0.001 (0.86)	0.001 (0.64)
<i>R²</i>	0.557	0.404	0.377	0.634	0.808
<i>F</i>	10.955	2.973	3.586	19.259	46.942

註: 1) 表記方法은 〈表 1〉과 동일함.

〈表 4〉 聯立方程式體系의 推定¹⁾

	<i>P1</i>	<i>EXP</i>	<i>IMP</i>	<i>H</i>
<i>P1</i>	—	—	1.307 (0.37)	—
<i>EXP</i>	-0.078*** (-4.09)	—	0.942*** (2.78)	0.001** (1.82)
<i>IMP</i>	0.006 (0.20)	—	—	0.001** (1.97)
<i>H</i>	—	—	—	—
常數	72.465*** (19.94)	58.140** (1.73)	-87.457 (-0.34)	-0.040 (-1.03)
<i>DUM5</i>	3.640 (1.10)	6.512 (0.262)	—	—
<i>DUM6</i>	—	-64.835* (-1.37)	—	—
<i>NTP2</i>	—	0.488*** (2.85)	-0.549** (-2.01)	—
<i>GRVS</i>	-0.043 (-0.92)	—	—	—
<i>GREXP</i>	—	0.136 (0.39)	—	—
<i>GRIMP</i>	—	—	0.120 (0.16)	—
<i>ADVS3</i>	324.640*** (3.01)	—	—	1.522 (0.99)
<i>RDVS</i>	134.556 (0.58)	810.822 (0.31)	—	-3.142 (-1.20)
<i>SE2</i>	34.779** (2.31)	324.997* (1.55)	—	1.970*** (11.20)
<i>CDR2</i>	-1.051 (-0.46)	42.193 (0.95)	—	0.054** (2.140)
<i>RCR</i>	10.445** (1.97)	79.485 (1.11)	—	0.501*** (8.87)
<i>KREQ2</i>	0.001 (0.26)	—	—	-0.001*** (-2.99)
<i>KL</i>	—	-0.003*** (-4.03)	0.001 (0.23)	—
<i>TR</i>	-0.041 (-0.50)	—	-1.415* (-1.39)	0.002** (2.05)
<i>ILR</i>	-0.072*** (-2.65)	—	0.088 (0.18)	-0.001 (-0.14)

註: 1) 表記方法은 〈表 1〉과 동일함.

〈表 1〉, 〈表 2〉에서의 *IMP*의 *P1*에 대한 負의 效果는 假說1을, 〈表 4〉에서의 正의 效果는 假說2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P*의 *P1*에 대한 負의 效果는 〈表 1〉, 〈表 2〉와 비교해 볼 때 더욱 큰 有意性을 나타내지만 이를 假說3에서 주장된 輸出의 市場成果向上 效果로 보기 힘든 까닭은 〈表 2〉에서 보듯이 *EXPDUM4*, *EXPDUM5*의 係數에 대한 推定值 및 그 有意性의 차이에 있다. 輸出에 대한 構造式的 경우에는 〈表 3〉과 비교해 볼 때 規模의 經濟를 나타내는 變數들에 대한 有意性이 감소했으며 그 대신 *KL*에 대한 有意性은 증가했다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輸入에 대한 構造式的 경우 說明變數 중 *NTP2*의 有意性이 증가하고 *TR*의 有意性이 감소한 점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나 *P1*, *EXP*의 輸入에 대한 영향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表 3〉과 비교해 볼 때 輸入에 대한 利潤率의 負의 效果가 正의 效果로 변화했고, 輸入에 대한 輸出의 效果는 有意性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상당한 有意性을 가지는 正의 效果로 변화했다. 이 두가지 變數의 符號와 有意性의 변화는 假說1과 假說3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는 결과로서 이해된다. 集中指數의 경우 역시 說明變數들의 係數 推定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輸出, 輸入이 集中指數에 대해서 갖는 效果는 有意性이 훨씬 증가했다. *TR*, *ILR*의 경우 〈表 1〉에서의 *P1*에 대한 *TR*의 負의 效果가 〈表 4〉에서는 그 有意性이 많이 감소하였고 *ILR*의 *P1*에 대한 負의 效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몇몇 變數들을 제외하고는 實證分析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假說1~假說4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單一線型回歸分析의 推定結果에서는 假說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던 變數들이 聯立方程式體系의 推定結果에서는 대부분 假說에 더욱 근접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인데 이는 假說1~假說4에서 제시된 同時性에 대한 經驗的 證據가 된다고 할 수 있다. 假說에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主要變數로는 利潤率에 대한 輸出의 效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聯立方程式體系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로서 利潤率이 國內企業의 內需市場 收益性和 輸出市場 收益性を 모두 포함하며 輸出市場과 內需市場間의 收益性的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表 1〉~〈表 4〉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은 모두 代替變數들인데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유사하지만 *DCR3*의 경우에는 *CR3*, *H*와는 달리 說明變數들이 갖는 係數의 統計的 有意性이 훨씬 낮았다.

V. 要約 및 結論

本論文은 商品, 資本의 對外去來와 內需市場의 產業組織이 갖는 連繫性을 중심으로 韓國의 產業組織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II章에서는 產業組織에 대한 對外去來의 영향을 강조하는 新產業組織論의 주장에 따라 既存 SCP模型을 개편하고 새로운 變數들과 기존의 主要變數들간의 連繫性 및 主要從屬變數들의 同時性에 대하여 논의했다. 輸入 등 海外로부터의 流入은 市場成果, 市場構造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國內企業의 輸出은 內需市場의 產業組織과 어떤 連

繫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既存 新産業組織論의 發見 및 일부 國內研究를 중심으로 假說을 전개했다.

Ⅲ章에서는 諸假說에 근거한 간단한 計量模型을 소개하고 주요변수의 測定方法과 問題點에 대해 논했다. Ⅳ章에서는 可用한 統計資料를 중심으로 模型을 推定했는데, 輸入, 輸出과 産業組織의 連繫에 대한 實證分析結果는 대체로 假說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사항은 假說1~假說4에서 명시된 主要變數들간의 同時性を 감안한 聯立方程式體系의 推定結果는 同時性を 무시한 單一方程式들의 推定結果보다 諸假說의 주장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輸出과 市場成果의 관계에 대한 假說3, 假說4의 주장은 實證分析의 결과와는 상당한 거리를 나타냈는데 이는 利潤率 測定值 自體의 문제, 輸出을 결정하는 主要 說明變數의 누락 등 本 研究의 여러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풀이된다.

內需市場의 産業組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海外的 要素로는 輸出, 輸入 이외에도 直接·合作投資, 단순한 技術移轉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자료의 제약상 聯立方程式體系의 回歸分析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은 本 研究의 不完全性으로 지적된다. 市場構造의 進入障壁이 높은 産業에 있어서 潛在的 國內企業은 既存의 國內企業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外國企業이 內需市場의 중요한 潛在的 進入者로서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外國企業의 國內子會社는 獨寡占的 産業에 있어서 중요한 競爭源이 된다. 外國企業의 경우 潛在的 國內企業과는 달리 海外投資, 輸出, 단순한 技術移轉 등 다양한 進入形態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이러한 選擇의 自由 자체가 潛在

的 國內企業에 대한 外國企業의 우위를 형성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기존 서베이資料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外國人投資 및 外國技術의 導入 또한 輸入, 輸出과 마찬가지로 內需市場의 構造 및 市場成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市場開放과 經濟의 自律化가 강조되는 시점에 있어서 對外去來와 內需市場의 産業組織에 대한 고찰은 政策的인 次元에서는 貿易 및 海外投資에 관한 政策과 內需市場에서의 競爭政策과의 관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이한 유형의 對外去來가 市場構造, 企業行態, 市場成果에 대하여 相異한 結果를 초래한다면 政府는 이러한 因果關係에 유의하여 政策手段의 選擇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本 研究의 不完全性에도 불구하고 <表 4>의 聯立方程式體系의 推定結果는 몇 가지 重要한 政策示唆點을 갖고 있다. 첫째, 輸入의 內需占有率 自體는 市場成果의 向上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假說2의 主張이 뒷받침되는데 이는 韓國의 輸入政策이 市場成果를 向上시키는 手段으로 사용되어 오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市場成果를 向上시킴에 있어서 輸入政策의 限界를 드러낸 것은 아니며 最近의 輸入擴大는 中전보다 市場成果向上效果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輸入의 內需占有率이 市場成果의 向上에 기여하지 못했듯이 높은 利潤率은 輸入의 內需占有率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輸出을 위한 輸入이라는 假說2의 主張은 輸入의 內需占有率을 決定하는 構造式的 推定結果에도 한결 같이 나타나 있어서 韓國의 輸入政策이 市場成果向上과는 無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다시 증명하는 셈이다. 셋째, 關稅引下를 통한 輸

入開放보다는 非關稅輸入障壁의 除減을 통한 輸入開放이 市場成果의 向上에 더욱 뚜렷한 效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輸入의 內需占有率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非關稅障壁보다 關稅障壁이 더욱 뚜렷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政策手段의 선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네째, 集中指數를 決定하는 構造式에 있어서는 輸出比重이 높을수록 獨寡占의 市場構造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關稅·非關稅障壁이 集中指數에 대해 갖는 正의 效果는 左承喜(1988)에서의 주장과 같이 政治經濟學的인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에 있어서의 改善方案을 논의해 본다. 첫째, 外國人投資企業, 外國技術導入企業의 內需占有, 經營成果 등은 輸入, 國內企業의 輸出에 못지않게 內需市場의 產業組織을 이해함에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可用해짐에 따라 보다 완전한 模型의 檢證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市場成果의 指標을 靜態的 效率性에만 국한하기보다는 動態的 效率性도 동시에 고려함이 바람직하며, 靜態的 效率性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內需市場만을 중심으로 해서 輸入, 外國人投資企業, 國內企業의 收益性을 각각 측정하고 輸出市場에서의 收益性은 別途로 측정하여 이들 각자에 대한 決定要因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附表 2>, <附表 3>에서 볼 수 있듯이 外國人投資企業은 國內企業에 비해서, 輸出企業은 內需企業에 비해서 높은 收益性을 나타내는데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은 구분을 바탕으로 研究가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세째, 商品 및 資本의 去來를 통해 國家間 連繫性이 증대될수록 한 국가의 內需市場 產業組織은 去來相對國의 產業組織과 더욱 큰 連繫性을 갖게 된다는 것이 新產業組織論의 또 다른 주장이다²²⁾. 主要去來國間的 產業組織의 連繫에 대한 이같은 주장은 對外去來가 特定國家에 偏重되어 있을 경우에 더욱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진다. 캐나다를 經驗的 分析의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計量模型의 主要說明變數로서 美國의 市場構造, 企業行態, 市場成果의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國家間 產業組織의 連繫에 근거한다. 韓國의 경우에도 對外去來의 상당부분이 美國, 日本에 偏重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이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美國, 日本의 韓國 內需市場에의 참여를 美國市場, 日本市場의 產業組織의 特性에서 설명한다든지, 이들 市場에의 韓國의 進出을 韓國 產業組織의 特性은 물론 이들 市場의 產業組織의 特性에서 설명하는 등의 시도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向後 研究를 위해서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22) Caves et al. (1980), Pugel(1978), Yamawaki (1984) 등을 참조할 것.

▷ 參 考 文 獻 ◁

- 楊秀吉, 「輸入自由化와 經濟運用」, 『經濟論集』, 第23卷 4號,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4, pp. 509~545.
- 李奎億, 「韓國製造業의 市場構造·行態·成果의 相互關係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3卷 2號, 韓國開發研究院, 1981, pp. 141~157.
- 左承喜, 「韓國의 市場開放決定要因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10卷 2號, 韓國開發研究院, 1988, pp. 65~90.
- 楊秀吉, 『產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 研究報告 8209, 韓國開發研究院, 1982.
- 韓國信用評價(株), 『外國人投資의 國民經濟效果와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分析』, 1987.
- Baldwin, J. and P. Gorecki, "Entry and Exit to the Canadian Manufacturing Sector: 1970-1979," Discussion Paper No. 225, Economic Council of Canada, Feb. 1983.
- Bloch, H., "Prices, Costs, and Profits in Canadian Manufacturing: The Influence of Tariffs and Concentratio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Nov. 1974, pp. 594~610.
- Caves, R. E.,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Feb. 1971, pp. 1~27.
- _____,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_____, and J. Khalilzadeh-Shirazi,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Organization: Some Statistical Evidence," A.P. Jacquemin and F.W. de Jong(eds.), *Welfare Aspects of Industrial Markets*, Leiden: Martinus Nijhoff, 1977.
- _____, et al., "Scale Economies in Statistical Analyses of Market Powe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75, pp. 133~140.
- _____, et al., *Competition in the Open Economy: A Model Applied to Canad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Davies, S., "Minimum Efficient Size and Seller Concentration: An Empirical Problem",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March 1980, pp. 298~301.
- Dixit, A. K. and A. S. Kyle, "The Use of Protection and Subsidies for Entry Promotion and Deterr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85, pp. 139~152.
- Eastman, H. C. and S. Stykolt, *The Tariff and Competition in Canada*, Toronto: Macmillan, 1967.
- Eaton, J. and H. Kierzkowski, "Oligopolistic Competition, Product Variety, and International Trade," H. Kierzkowski (ed.),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Oxford: Clarendon Press, 1984.

- Esposito, L. and F. F. Esposito, "Foreign Competition and Domestic Industry Profitab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71, pp.343~353.
- Gorecki, P., "The Determinants of Entry by Domestic and Foreign Enterprises in Canadian Manufacturing Industries: Some Comments and Resul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76, pp.485~488.
- Jacquemin, A., *The New Industrial Organization*, Cambridge:MIT Press, 1987.
- Jones, J. L. H. et al., "Market Structure and Profitability in Canadian Manufacturing Industry: Some Cross-Section Result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ug. 1973, pp.356~368.
- Kim, Kwang Suk, "Economic Impact of Import Liberalization in Korea", Presented at the 4th KDI/CHIER Seminar, Feb. 1988.
- Krugman, P., "Increasing Return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mimeo, Aug. 1985.
- Lee, Kyu-Uck,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Organization: The Korean Experience," mimeo, July 1988.
- Pagoulatos, E. and R. Sorensen, "Domestic Market Structure and International Trade: An Empirical Analysis,"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Spring 1976, pp.45~60.
- Porter, M., "Consumer Behavior, Retailer Power and Market Performance in Consumer Goods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74, pp.419~436.
- Pugel, T., *International Market Linkages and U.S. Manufacturing: Prices, Profits and Patterns*, Cambridge: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78.
- _____, "Foreign Trade and U.S. Market Performance,"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Dec. 1980, pp. 119~130.
- Weiss, L. W., "Factors in Changing Concentr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 1963, pp. 70 ~77.
- White, L. J., "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74, pp.1013~1020.
- Yamawaki, H., "Exporting, Foreign Market Structure, and Profitability: Some Evidence from Japanese and U.S. Manufacturing Industries," mimeo, Nov. 1984.
- Yoo, S. M., "Entry into a Foreign Market: Theory and Evidenc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Aug. 1987.

〈附表 1〉 開放經濟의 SCP模型을 위한 主要變數

分類	새로이 追加될 變數	備考
基本條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場開放의 程度 - 關稅 및 非關稅 輸入規制 - 外國人投資, 生産, 販賣에 대한 規制 - 外國技術導入에 대한 政策 · 各種 輸出支援政策 · 海外投資에 대한 政策 	SCP模型의 基本條件중 主要사항인 政府의 産業 政策에 대응하는 貿易, 投資에 관한 各種 政策
市場構造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需市場을 중심으로 한 供給者의 分布 - 輸出을 제외한 內需에 대한 國內企業들의 占有率 分布 - 輸入의 內需占有率 - 外國人投資企業의 內需占有率 · 輸出이 總國內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 · 海外投資 · 輸入商品, 外國人投資企業製品의 商品差別 · 去來相對國의 市場構造 	輸出을 제외한 輸入과 外國人投資企業의 內需用販賣를 포함한 占有率의 分布狀態를 일컬음
企業行態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 外國人投資企業의 價格, 品質戰略 · 輸入, 外國人投資企業의 廣告宣傳 · 外國人投資企業의 技術開發 · 國內企業의 外國技術導入 · 國內企業 輸出의 價格, 品質戰略 · 國內企業의 海外投資에 따른 戰略的 側面 · 去來相對國 企業들의 行態 	
市場成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 外國人投資 등 海外部門의 流入으로 인한 靜態的, 動態的 效率性的 變化 · 輸出, 海外投資 등 對外進출로 인한 靜態的, 動態的 效率性的 變化 · 外國企業의 收益性 및 生産者剩餘의 海外流出 · 雇傭效率性 · 品質向上 	

〈附表 2〉 各種 分類에 따른 收益性比較

(단위: %)

分類 年度別	總資本 經常利益率			賣出額 經常利益率			賣出額 純利益率 ¹⁾		
	1984	1985	1986	1984	1985	1986	1984	1985	1986
製造業(全體) ²⁾	3.4	3.0	4.5	2.7	2.5	3.6	1.2	1.1	2.0
投資比率 50%이상인 外國人投資企業	5.4	5.4	6.0	4.1	4.0	4.4	2.5	2.3	2.6
外國人投資企業(全體) ³⁾	6.2	6.8	6.9	3.9	4.3	4.8	2.8	3.0	3.2
輸出企業 ⁴⁾	4.3	3.5	5.5	3.5	2.8	4.2	1.4	1.3	2.3
內需企業	2.9	2.7	3.8	2.3	2.3	3.2	1.1	1.0	1.7

註: 1) 諸收益性指標의 정의에 대해서는 企業經營分析 참조. 위 표에서의 분류는 모두 製造業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外國人投資企業을 포함한 製造業全體를 지칭함.

3) 外國人投資比率 50%이상인 企業들과 모든 外國人投資企業들로 분류했음.

4) 輸出企業과 內需企業은 總賣出額 중 輸出比重이 50%이상은 輸出企業, 50%미만은 內需企業으로 구분했음.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號.

韓國信用評價(株), 『外國人投資의 國民經濟效果와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分析』, 1987.

〈附表 3〉 外國人投資企業의 產業別 收益性比較¹⁾

分類	項目別 年度別	賣出額 經常利益率			賣出額 純利益率		
		1984	1985	1986	1984	1985	1986
製造業(全體)		3.9 (2.7)	4.3 (2.5)	4.8 (3.6)	2.8 (1.2)	3.0 (1.1)	3.2 (2.0)
食品		9.7 (1.5)	8.4 (1.6)	5.0 (2.5)	5.1 (0.8)	4.3 (0.6)	2.8 (1.3)
纖維·衣類		9.5 (1.2)	13.0 (1.6)	13.0 (3.9)	5.3 (0.3)	7.8 (0.8)	8.0 (2.4)
製紙·木材		7.7 (-4.2)	6.9 (-3.3)	3.8 (-0.3)	3.2 (-4.1)	2.9 (-1.5)	2.6 (-0.7)
化學		7.6 (3.5)	7.1 (3.2)	11.0 (4.8)	5.5 (2.0)	4.5 (1.6)	7.3 (2.7)
窯業		5.6 (3.1)	7.3 (7.6)	6.0 (7.8)	5.7 (1.8)	3.9 (4.1)	3.5 (4.1)
金屬		3.5 (4.8)	2.8 (3.6)	4.1 (5.0)	2.9 (1.2)	2.0 (1.3)	2.7 (2.2)
機械		5.7 (3.3)	4.5 (3.3)	2.9 (5.3)	4.9 (2.2)	3.6 (1.6)	1.8 (3.5)
電氣·電子		7.7 (3.1)	6.4 (2.9)	5.7 (3.9)	6.1 (1.8)	4.8 (1.6)	4.0 (2.5)
기타製造業		7.0 (3.3)	0.9 (4.2)	0.7 (5.3)	4.7 (1.8)	-1.0 (1.6)	-0.5 (2.5)
水產業		-5.1 (-0.6)	-55.4 (0.6)	-9.3 (4.8)	-5.5 (-0.6)	-55.6 (-0.9)	2.3 (2.6)
鑛業		-39.5 (1.1)	-28.7 (2.6)	-35.8 (3.1)	-39.5 (-0.3)	-28.8 (2.1)	-37.2 (2.1)
建設業		0.8 (1.2)	-7.2 (1.8)	2.7 (-0.6)	0.0 (1.0)	1.0 (0.9)	1.1 (-0.3)
都小賣業		4.1 (0.6)	-0.3 (0.3)	-8.8 (0.9)	1.3 (0.4)	-1.3 (0.2)	-9.1 (0.6)
貿易業		26.4 (0.5)	22.2 (0.1)	25.9 (0.2)	14.8 (0.3)	12.9 (0.1)	14.9 (0.1)
飲食店·宿泊業		17.8 (0.2)	18.0 (-4.8)	18.3 (9.5)	16.0 (-1.2)	13.1 (-8.7)	11.3 (5.9)
運輸·倉庫業		6.5 (-0.2)	13.5 (-0.3)	15.5 (1.4)	-8.5 (-2.0)	13.9 (-2.4)	12.4 (-1.1)
기타서비스業		17.0 (5.8)	19.3 (7.4)	13.6 (4.3)	13.6 (3.9)	13.4 (4.9)	8.3 (2.5)

註: 1) 첫번째 수치는 投資比率 50% 이상 外國人投資企業의 收益性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全體調查對象企業의 收益性임.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韓國信用評價(株), 『外國人投資의 國民經濟效果와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分析』, 1987.